2026년 11월 3주차 평촌교회 소그룹 나눔지

결과보다 크신 하나님
(마가복음 4:26 - 29)

✝ **말씀 나누기**

1.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조급한 마음으로 일을 서두르거나, 내 뜻대로 해결하려 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기대했던 결과와 달랐지만, 지나고 보니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일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무엇인지 나누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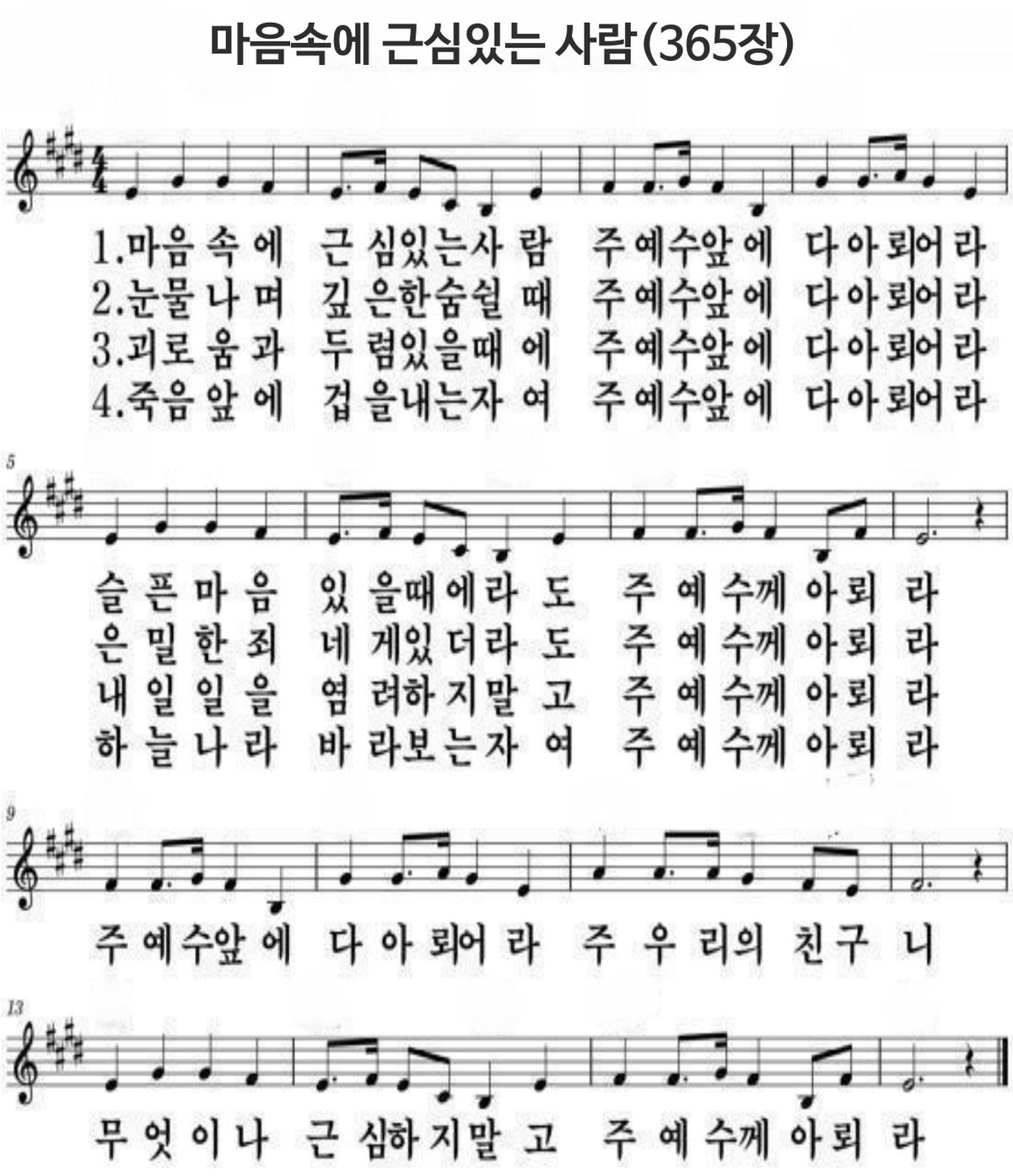
✝ **함께 기도하기**

1. 결과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눈앞의 결과에 마음을 빼앗겨 염려하고 조급해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게 하옵소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참된 평안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2. 기도로 함께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
작은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의 물을 부으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의 눈물을 함께 나누며 기도로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과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어 주옵소서.

✝ **찬양하기** ♫

마음속에 근심있는 사람(365장)



✝ 설교 요약하기

도입 | 우리의 인생은 결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과를 기다립니다. 자녀의 시험 성적과 건강검진 결과, 직장에서의 평가 등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기대와 염려가 교차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 결과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결과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눈앞의 결과보다 크신 분이시며,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론 1| 우리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씨앗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씨앗은 농부가 잠든 밤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자라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조급한 마음에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염려하며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삶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급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기다림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본론 2| 자라게 하시는 분은 결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이삭을 맺어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는 과정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곡식만을 열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작은 싹이 돋아나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은 작고 초라해 보여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자폐 진단을 받은 아들을 키우며 오랜 세월 눈물로 살아온 한 어머니는 다른 자녀들이 수능을 치르는 날, 아들로부터 수험표 대신 첫 월급이 기록된 급여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달랐지만, 어머니는 막막하고 힘겨웠던 시간 속에서도 아들을 지켜주시고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처럼 보였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인생을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론 3| 기도로 물을 주며 함께 기다립니다
농부는 열매가 맺혔다고 곧바로 거두지 않고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으며, 지금의 결과가 삶의 최종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기도의 물을 주는 것입니다. 콩나물시루에 부은 물이 모두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아무런 변화 없이 사라지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감옥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기보다 서로의 아픔을 품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결론 | 결과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결과를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생명의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결과로 낙심하지 말고,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서로를 위해 기도의 물을 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과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눈앞의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결과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